

**Title: Jonah part 4 – Sermon Notes**

Scripture: Jonah 3:1-6

Date preached: October 31st 2021

**Scripture: Jonah 3:1-6**

**1**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econd time, saying, **2** “Arise, go to Nineveh, that great city, and preach to it the message that I tell you.” **3** So Jonah arose and went to Nineve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Now Nineveh was an exceedingly great city, a three-day journey *in extent*. **4** And Jonah began to enter the city on the first day’s walk. Then he cried out and said, “Yet forty days, and Nineveh shall be overthrown!” **5** So the people of Nineveh believed God, proclaimed a fast, and put on sackcloth, 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 of them. **6** Then word came to the king of Nineveh; and he arose from his throne and laid aside his robe,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and sat in ashes.

**1** 여호와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저 큰 니느웨성으로 가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대로 니느웨성의 멸망을 선포하라.” **3**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대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 데 걸어서 3 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4**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40** 일 후에는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다. **5**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굶은 삼베 옷을 입었다. **6**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삼베 옷을 입고 잣더미에 앉았다.

**Review chapter 2**

Last time we looked at chapter 2. The rebellious and disobedient prophet Jonah had tried to flee from God. Whilst on a ship sailing for Tarshish God had sent a fierce storm. The sailors onboard the ship did all they could to weather the storm but it was to no avail. Jonah knew that the only way the seas would become calm again was if he was to be thrown overboard. The sailors were reluctant to throw a prophet of God over the side but in the end they had no choice. Jonah was thrown into the churning waves. As he sank down through the water Jonah believed that his life would soon be over. God however had other plans. He had prepared a mighty fish that would come and swallow the prophet. Saved from a horrendous death by drowning Jonah found himself “safe” inside the belly of the fish. It is here, during his stay of 3 days and 3 nights that he offers a prayer to God.

His prayer as we said last time is in the form of a highly structured psalm of thanksgiving. We also pointed out last time just how dependent Jonah was on the psalms to shape and inform his thoughts. Every word in the text of Jonah's prayer is taken from the psalms. Some of it is paraphrased, some summarized and some is word for word.

God heard Jonah's prayer and responded.

He commanded the fish to vomit Jonah onto dry land. That's an interesting way for the Lord to deliver His prophet to safety. God could have got Jonah to safety in any number of ways, but he chose to have the fish vomit him out. There is something interesting going on here. I'm going to read from Leviticus chapter 18.

**24** ‘Do not defile yourselves with any of these things; for by all these the nations are defiled, which I am casting out before you. **25** For the land is defiled; therefore I visit the punishment of its iniquity upon it, and the land vomits out its inhabitants. (Lev 18:24-25)

We get here another reference to being “vomited out.” What God is telling the people of Israel is if they do not follow and obey Him He will vomit them out of the land. Jonah had prayed what we might say was a “good prayer” but it lacked something. It was missing the most essential component necessary. It lacked him confessing his sin and begging God for forgiveness. That was why he was vomited onto the land. We pick up the story with Jonah safely on dry land.

지난 시간에 우리는 2 장을 봤습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 했습니다. 다시스로 향해하는 배에서 신은 맹렬한 폭풍을 보냈습니다. 배에 탄 선원들은 폭풍우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바다가 다시 잔잔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옆구리에 내던지기를 꺼렸지만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회물아치는 파도에 던져졌습니다. 물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요나는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와서 선지자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역사하여 끔찍한 죽음에서 구조된 Jonah 는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3 박 3 일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그의 기도는 고도로 구조화된 감사의 시편 형식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시간에 요나가 그의 생각을 형성하고 알려주기 위해 시편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지적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문에 있는 모든 단어는 시편에서 따왔습니다. 일부는 의역, 일부는 요약, 일부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를 안전하게 구하실 수 있었지만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8 장을 읽겠습니다.

**24 '너희는 이런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받았음이니라. 25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죄악의 형벌을 갚고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하니라 (레 18:24-25)**

여기서 우리는 "구토"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토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우리가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를 했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토한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안전하게 요나와 함께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 **Overview chapter 3**

Let us look at an overview of chapter 3. We can divide the chapter into three parts.

3 장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God calls Jonah again. Jonah travels to Nineveh and preaches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가 니네베로 가서 전파하다	Verses 1-4
2	The people of Nineveh accept Jonah's word and repent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다	Verses 5-9
3	God relents	Verse 10

신이 뉘우친다	
---------	--

### **1 God calls Jonah again. Jonah travels to Nineveh and preaches**

Chapter 3 begins in exactly the same way chapter 1 began. The Word of the Lord again came to Jonah. God in His grace and mercy was giving the disobedient prophet a second chance to obey. Sometimes God gives us a second chance to complete our assigned missions. He is however under no obligation to do so. He may very well give the task he assigned to us to someone else. Lucky Jonah is given a chance to show that he had learned from his mistake. He is to go to Nineveh and then God will tell Him what to say. Unlike in chapter one he arises and sets off in the direction of Nineveh. We do not know exactly where the fish spat him out but it was about 550 miles from Israel to Nineveh.

We are told in verse 3 that Nineveh was an exceedingly great city. We are also given the interesting detail that it was a **three-day journey in extent**. There is considerable confusion about what exactly is meant here. The Hebrew literally means “a distance of three days.” The NIV says it took three days to go through it. The NASB says it was a three-day walk. Given that a healthy person can walk at least 20 miles a day this would make it a very large city. Archaeological excavations have shown that the walled city of Nineveh was about 8 miles in circumference. Some critics of the bible have used this fact to attack the historical accuracy of the book. How they say could a city only eight miles wide be a three-day journey? Well to answer this we need to look at two verses in Genesis.

### **11 From that land he went to Assyria and built Nineveh, Rehoboth, Calah, 12 and Resen between Nineveh and Calah (that is the principal city). (Genesis 10:11-12)**

What these verses are telling us is that Nineveh was not confined to its city walls. It was in fact a conglomeration of 4 cities (Rehoboth, Calah, and Resen) all coming under the umbrella of Nineveh. This means it covered a far larger area of approximately 40 miles. As a modern example today we might look at Suwon. The central part of Suwon comprises the old walled city. You can walk around the fortress walls which measure about 5 km. However the greater city of Suwon covers all the modern areas now surrounding the old city. You would need to walk a lot farther than 5 km to walk around Suwon today!

We pick up the story with Jonah arriving in the city of Nineveh. The traditional view, the one I hold is that after Jonah arrived at the edge of the city, he proceeded into it and began announcing his message during his first day there. As we said this was a large geographic area and it would have taken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ffort to deliver his message in every place. Fortunately his message is short and concise. In English, it is recorded in eight words, “Yet forty days, and Nineveh shall be overthrown!” In Hebrew, it is even shorter. Just five words. The word translated as “overthrown” in our English bibles is the Hebrew *hâphak* (haw-vak'). It could mean destroyed as was the case with Sodom and Gomorrah (Gen 19:25) or it could be used to mean conquered militarily (2 Sam 10:3). It also had another interesting meaning which I will talk about later.

We should note that Jonah does not give them any reason for this coming overthrow or that they can prevent it by repenting and turning to God. This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other OT prophets who always combined their message of future woe with a call to repentance. I think in this we get a glimpse of Jonah's true heart. He relished telling them they would be overthrown, but he did not really want the people of Nineveh to be saved. Let's see how the people of Nineveh responded to Jonah's message.

3 장은 1 장이 시작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불순종한 선지자에게 순종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에게 할당한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잘 맡길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요나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1 장과 달리 그는 일어나서 니느웨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물고기가 그를 뱉어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550 마일이었습니다. 3 절에서 니느웨는 심히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3 일 간의 여정이라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사흘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NIV 는 그것을 통과하는데 3 일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NASB 는 그것이 3 일의 산책이었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 20 마일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도시가 될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니네베는 둘레가 약 8 마일이었습니다. 일부 성경 비평가들은 이 사실을 책의 역사적 정확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폭이 8 마일에 불과한 도시가 3 일 동안 여행할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의 두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 그 땅에서 앗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봇과 갈라와 12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본성이니라 (창세기 10:11-12)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가 성벽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니느웨의 우산 아래에 있는 4 개의 도시(르호봇, 갈라, 레센)의 집합체였습니다. 이것은 약 40 마일의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덮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예로 수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원 of 중심부는 오래된 성곽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5km 에 달하는 성벽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도시인 수원은 현재 구시가지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대적인 지역을 포괄합니다. 오늘 수원을 돌아다니려면 5 km 가 넘는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요나가 도시의 가장자리에 도착한 후 그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보낸 첫날에 자신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이며 모든 장소에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합니다. 영어로는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여덟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더 짧습니다. 딱 다섯 단어. 우리 영어 성경에서 “전복된”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하팍(haw-vak')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처럼 멸망을 의미할 수도 있고(창 19:25), 군사적으로 정복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삼하 10:3). 그것은 또한 나중에 이야기할 또 다른 흥미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그들에게 이 전복에 대한 어떤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그것을 막을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회개에 대한 외침과 항상 결합시킨 다른 구약 선지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 **2 The people of Nineveh accept Jonah's word and repent**

The people of Nineveh have received God's message. In forty days they are to be overturned or destroyed. But here we see something very interesting. The word *haphak* could mean destruction or overthrow, but it also had another subtle meaning. It could mean to be “transformed or changed.”

We see it used this way in Exodus 7:15. Here God changed (*haphak*) Moses's staff into a snake. So Jonah went into the city telling them they were about to be overthrown (*haphak*). But in fact they were about to be changed (*haphak*) through God's power for the good. Jonah's message was; "You're all about to die," but what they heard was, "God will show you mercy if you repent." How amazing God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people is dramatic. The writer tells us that, The people of Nineveh believed God, proclaimed a fast, and put on sackcloth, from the greatest to the least of them. It is such an extreme response that many skeptics have doubted the account. Ultimately I believe that what happened was that the power of God through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moved over the people and changed their stubborn rebellious hearts.

However there are some other interesting things that had occurred in and around Nineveh that God may have used to sway their thinking. In the years prior to the arrival of Jonah Nineveh had suffered some serious disasters. There had been two plagues, a severe flood and a long famine in the years 765-759 BC. There had also been a total eclipse of the sun on June 15th 763 BC. In the ancient world such things were seen as bad or ominous omens. They indicated that the gods were not happy with their subjects. Did this help convince the people that Jonah was telling them the truth? The bible does not tell us but it's a possibility.

Also we might think about Jonah himself. Do you remember me telling you the story of the whaler James Bartley who was swallowed by a whale and later found alive. The experience left him bleached white from the whale's stomach acids. Perhaps the same thing occurred to Jonah. Imagine a strange bleached man arriving in your city and saying he spoke a message from God. You might not be convinced but there is something else we need to know about the Ninevites.

The people of Nineveh who were Assyrians worshipped the god Dagon. He was considered to be the father of Baal and a god of fertility. His name sounds like "fish" and he was often depicted as a half-man, half-fish being. Today we would describe him as a merman. They believed in a god who lived in the sea and this was where the strange Jonah had come from. Perhaps the people of Nineveh believed that Jonah had been sent by the fish god.

Whatever persuaded them to listen the response was instant and dramatic. They began to fast and exchanged their clothes for sackcloth. These acts were visible signs of humility in the ancient Near East (1 Kgs 21:27, Isa 15:3). In fasting and wearing sackcloth the people were recognising their wickedness and rejecting the comforts and pleasures of life. This attitude of extreme sorrow and repentance was not limited to the ordinary people of Nineveh. The King of Nineveh also embraced Jonah's message. There is some disagreement on which king this was but many it was Ashurr-dan 3rd.

We are told he laid aside his royal robes,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and sat in ashes. Many critics have read this and again doubted that a king in the ancient world would ever do such a thing. However in the Assyrian world they had a well-established process for dealing with national emergencies. It was known as the "*shar puhi*." What would happen in times of national crisis is that the king would temporarily step aside and put a substitute king in his place. The thinking was that if the gods were angry with the nation and decided to kill the king they would not be killing the real king. In laying aside his robes and stepping down the king was then acting in a consistent way with Assyrian thinking.

However we should note that there was something true and genuine going on here. The king was not just going through an external act of showing remorse. The King of Assyria, a pagan was demonstrating true humility. He took Jonah's message so seriously that he passed a royal decree. It was not enough that a few repent and show contrition. All the people and even the animals must

participate in the nationwide fast. Again critics declare that such a decree, including even the animals seems far-fetched. In fact it was a fairly common practice for the kings of Assyria to call national fasts in times of crisis. Such decrees frequently included the land and by extension the animals living on the land. We have archaeological evidence of Ashur Dan 3rd himself passing a decree following a serious earthquake.

The decree fully expresses the king's heart of humility and repentance. He recognizes that an external turning away from evil only will not be enough. If God is to spare them a complete transformation of the heart and their behaviour is required. They are to implore God for His mercy whilst at the same time demonstrating that they have turned from evil and are orienting themselves to good. The pagan world-view in the ancient east was that the gods controlled all areas of life. They believed that the gods demanded justice for humankind and that there was a consequence to their actions. Their fervent hope and prayer was that God would see their genuine repentance and turn His righteous anger away from them. God of course is under no obligation to forgive them and as sovereign over all things He is free to act as He pleases. Let us see what He does.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십 일 안에 그것들은 전복되거나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이라는 단어는 파괴 또는 전복을 의미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미묘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변형되거나 변경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출애굽기 7:15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으로 들어가 그들이 멸망될 것이라고 말하였다(하박). 그러나 사실 그들은 선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변화는 극적입니다. 저자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굶은 배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반응이어서 많은 회의론자들이 그 설명을 의심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고 완고한 반역적인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와 그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셨을 수도 있는 몇 가지 다른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도착하기 몇 년 전에 니느웨는 심각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기원전 765-759년에 두 가지 재앙, 심한 홍수와 긴 기근이 있었습니다. BC 763년 6월 15일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나쁘거나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그들의 신하들에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산 채로 발견된 고래잡이 제임스 바틀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 그는 고래의 위산으로 인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요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신의 도시에 도착한 이상한 표백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해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앗수르인 니느웨 사람들은 다곤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바알의 아버지이자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물고기"처럼 들리고 그는 종종 반인 반 물고기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인어로 묘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사는 신을 믿었고 이곳에서 이상한 요나가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한 것이 무엇이든 반응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시

작하고 그들의 옷을 굵은 베옷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보이는 겸손의 표시였습니다(왕상 21:27, 사 15:3).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써 백성들은 그들의 사악함을 인식하고 삶의 안락함과 쾌락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슬픔과 회개의 태도는 니느웨 서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 왕도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단 3세였다. 우리는 그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베로 몸을 가리고 재 속에 앉았다고 합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것을 읽고 고대 세계의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다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세계에서 그들은 국가 비상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잘 정립된 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샤 푸히"로 알려졌습니다. 국난이 닥치면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대신할 왕을 세우는 것이다. 신들이 국가에 분노하여 왕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면 진짜 왕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왕에서 물러난 것은 앗수르의 생각과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진실하고 진실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왕은 겉으로만 뉘우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교도인 아시리아 왕은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나의 메시지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왕의 칙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물론 동물도 전국 단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비평가들은 동물을 포함한 그러한 법령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앗수르 왕들이 위기의 시기에 국가적 금식을 부르는 것은 꽤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법령에는 흔히 토지와 그 땅에 사는 동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 단 3세 자신이 심각한 지진 이후에 법령을 통과시켰다는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칙령은 겸손과 회개의 왕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에서 외적으로 돌아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그들의

### **3 God relents**

The biblical text makes it clear that God observed their change. We are told, Then God saw their works, that they turned from their evil way. What God saw was that their external change came from an internal decision to think differently about the God of Israel. The people realised that in the past they had been wicked and wrong and now they wanted to do the right thing. The reality was that the people of Nineveh demonstrated genuine repentance for their past behaviour.

Eerdmans Bible Dictionary defines repentance as follows; *"a complete change of orientation involving a judgment upon the past and a deliberate redirection for the future."*

The people demonstrate true repentance and God has compassion upon the people of Nineveh. He did not bring upon them the destruction that Jonah had promised. This didn't make Jonah a liar. Nineveh finally experienced overthrow in 612 BC about 150 years later. We also should be careful not to think that because God relented His sovereignty is in any way limited. God gives His creation a free will. If we choose to repent and obey Him we will be blessed. If we reject Him and refuse to repent we face certain consequences. This doesn't mean that God is dependent on us but rather that we always remain dependent upon Him. The key take away here is that God saw their repentant hearts and extended His grace to them. They deserved punishment and death but instead received kindness and mercy. What an amazing God we serve. We too, due to our wicked hearts and lives of disobedience and rebellion deserve punishment and death. And yet because of the sacrifice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we can receive God's kindness and mercy. When we put our faith in Christ, confess and repent of our sin God is merciful to us. Amen and Amen.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화를 관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외적인 변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내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는 자신이 악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진정한 회개를 나타냈습니다.

Eerdmans Bible Dictionary 는 회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과거에 대한 판단과 미래에 대한 의도적인 방향 전환을 포함하는 방향의 완전한 변화."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나타내었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요나가 약속한 멸망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약 150 년 후인 BC 612 년에 마침내 전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의 주권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정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분께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벌과 죽음을 받아야 했지만 대신 친절과 자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사악한 마음과 불순종과 반역의 삶으로 인해 형벌과 죽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things for us to consider from today's passage.

#### **1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ternal and internal**

From the outside we would have to say that Jonah obeyed God's call. He went to Nineveh as commanded and gave them God's message. We know though that his heart was not in it. He said the right words but his heart remained cold towards the people of Nineveh. Often sadly there is a disconnect between what we do and our true feelings. For example some people come to church out of a sense of duty but in their hearts are not rightly motivated to come and worship the Lord. I often wonder how many so called believers will return to church when the Covid restrictions are relaxed. The same can be said for evangelism. How half-hearted we frequently are. We might go through the motions of speaking to people about our faith but our hearts remain cold and unfeeling. In this respect we are just like Jonah. Let us pray that God melts our uncaring hearts so that we feel as He does about the lost and needy.

#### **외부와 내부의 차이점**

외부에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마음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말은 옳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종종 슬프게도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진정한 감정 사이에 단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교회에 왔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예배할 마음이 제대로 생기지 않



왔습니다. 나는 종종 코로나바이러스 제한이 완화될 때 소위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작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감정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관심한 마음을 녹여서 잃어버린 자와 궁핍한 자들에 대해 느끼시는 것처럼 느끼도록 기도합시다.

## **2 How serious are we about repentance**

The King of Nineveh shows us as example of what true humility and repentance looks like.

I think too many Christians are apathetic about sin. I think some may be in danger of thinking that God is overlooking or not taking their sinning seriously. We would therefore do well to take heed of Jonah's call and the serious repentance it elicited from the Ninevites. There are serious consequences of sin. Let us then be serious in confessing and then repenting when we fall.

### **우리는 회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가**

니느웨 왕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간과하고 계시거나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의 부르심과 그것이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이끌어낸 진지한 회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죄에는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고백하고 넘어지면 회개합시다.